

-(으)ㄴ/는 모양이다

~인 모양이다, ~하는 것 같다

눈에 보이는 근거로 결론을 내립니다. 것 같다와 달리 다른 사람이나 외부 상황에 대해서만 쓰며,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쓰지 않습니다.

■ 결합 방법

품사	형태	예
동사, 현재	-는 모양이다	오다 → 오는 모양이에요
동사, 완료	-(으)ㄴ 모양이다	가다 → 간 모양이에요
형용사	-(으)ㄴ 모양이다	바쁘다 → 바쁜 모양이에요
앞으로의 일	-(으)ㄹ 모양이다	갈 모양이에요
ㄹ 받침	ㄹ 탈락	만들다 → 만드는 모양이에요
쓸 수 없는 대상	자기 자신	저는 아픈 모양이에요 (×)

■ 언제 쓰나요

형태는 관형형 체계를 따릅니다. 동사는 -는 모양이다, 형용사는 -(으)ㄴ 모양이다, 완료된 동작은 -(으)ㄴ 모양이다, 앞으로의 일은 -(으)ㄹ 모양이다를 씁니다. ㄹ 받침 어간은 ㄹ이 탈락합니다.

구체적인 근거에서 추론합니다. 문 앞에 젖은 우산이 있으면 밖에 비가 오는 모양이에요.라고 합니다. 추론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므로 다른 사람의 상황을 전할 때 잘 어울립니다.

학습자들이 자주 틀리는 제약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. 자신의 상태를 근거로 추론하지는 않으므로 저는 피곤한 모양이에요는 틀립니다.

-나 보다보다 약간 격식 있는 표현이며, 그것은 편한 대화에서 거의 같은 역할을 합니다.

■ 예문

- 1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있네요. 밖에 비가 오는 모양이에요.
- 2 불이 꺼져 있는 걸 보니 벌써 간 모양이에요.
- 3 연락이 없는 걸 보니 많이 바쁜 모양이에요.
- 4 짐을 싸는 걸 보니 여행을 갈 모양이에요.
- 5 부엌이 시끄러운 걸 보니 뭘 만드는 모양이에요.
- 6 표정을 보니 시험을 잘 본 모양이에요.

■ 비교

-(으)ㄴ/는 것 같다
것 같다는 자신에 대한 것을 포함해 어떤 인상에도 쓸 수 있고 훨씬 흔합니다. 모양이라는 특히 외부의 근거에서 나온 추론을 나타냅니다.
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. (내가 잘못된 것 같다) / 그 사람이 잘못된 모양이에요. (그 사람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)

-나 보다
뜻은 거의 같습니다. -나 보다는 더 구어적이고, 모양이라는 조금 더 신중하게 들리며 글에서 더 많이 쓰입니다.
비가 오나 봐요. (편한 말투) / 비가 오는 모양이에요. (신중한 말투)

-아/어 보이다
-아/어 보이다는 겉모습을 직접 말하고, 모양이라는 본 것에서 결론을 끌어냅니다. 하나는 묘사, 하나는 추론입니다.
피곤해 보여요. (피곤해 보인다) / 피곤한 모양이에요. (피곤한 것 같다)

■ 주의

- ✗ 저는 감기에 걸린 모양이에요.
- 저는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.
자신의 상태는 외부 근거로 추론하지 않습니다. 자신에 대해서는 것 같다를 쓰세요.
- ✗ 연락이 없는 걸 보니 바쁜 모양이에요.
- 연락이 없는 걸 보니 바쁜 모양이에요.
바쁘다는 형용사이므로 -(으)ㄴ을 씁니다. -는은 동사에 씁니다.
- ✗ 부엌에서 뭘 만드는 모양이에요.
- 부엌에서 뭘 만드는 모양이에요.
ㄹ 받침 어간은 관형형 체계의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-는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.